

지역 매아리

# 내년도 국가예산확보 동분서주

## 청소년 알바 환경개선 '팔 걷어'

유니세프(UNICEF) 아동친화도시 완주군이 아동·청소년의 권익이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한다.

5일 완주군은 지난해 완주군청소년의회로부터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부담을 받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 올해 완주군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이 주최하고 완주군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을 제안한 청소년이 직접 참여해 실행하는 이번 사업에는 청소년활동가 20여명이 4월에 발대식을 가졌다.

이후 5~6월에는 청소년아르바이트 권익에 대한 이론교육과, 7~8월에는 현장에서 나가 청소년아르바이트 환경개선 캠페인을 청소년·사업주·군민대상으로 진행했다. 캠페인 1차는 8월 11일 고산 미소시장 주변, 18일 삼례시장 주변, 31일에는 삼례공업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아동·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행복정책 추진으로 아동·청소년·군민 누구나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완주군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 박준배 김제시장, 국회 방문 현안사업 증액 필요성 피력 향후 심의과정에 적극 대응

박준배 김제시장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확정되고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장 주요사업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5일 국회를 찾았다.

먼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방문한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평선축제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문화관광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제예산의 국회 증액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국회 환노위 소속 이용득 의원과 예결특위 소속 의원실을 방문해 용지 축산밀집지역에 대한 특별관리 지역 지정과 현업축사 매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0억원, 종자기업 공동활용 종합공정시설 구축 5억원 그리고 2019 종자박람회 개최 9억원 등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김제의 경제도



박준배 김제시장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확정되고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장 주요사업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5일 국회를 찾았다.

분주하게 국회 일정을 소화한 박준배 시장은 연이어 행정안전부를 찾아 심보균 차관을 면담하고 죽산 급수구역 노후상수관로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하는 등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숨가쁜 하루를 보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김제의 경제도

## 깊어가는 가을 'BOOK소리 한마당'

### 김제시 북적북적 도서관 8일 책나누기 행사 개최

김제시립도서관은 오는 8일 북적북적도서관 2018년 책나누기 BOOK소리 한마당을 통해 독서기회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전북도청도서관과 김제시립도서관, 전북작은도서관운영협의회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작은도서관의 다양한 독서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개인소장 도서 중 활용하지 않는 책을 교환 또는 기증할 수 있는 나눔의 장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식전행사로 '전년의 사랑'의 아름다운 시상송과 함께 전라북도 어린이 관현악단과 김제시 기타동아리의 연주로 조용하던 도서관이 사람들과 음악으로 활기가 넘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주군영여고, 김제여고, 전주고등학교와 김제시 자원봉사센터의 협조로 네일아트나 페이스페인팅 그리고 도서관 자원봉사팀의 전래놀이, 책읽어주기 등에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기부자들이 참여해 행사를 더 풍성하게 해줄 것이며

시립도서관의 서예나 한국화 수강생들의 작품전시회, 프리마켓형식의 아나비더장터, 전라북도 작은도서관의 작품 전시회 등으로 볼거리를 더하고 있다.

송운섭 관장은 "당일 도서관에 오면 11시부터 진행되는 코리와 함께하는 수잔샘의 북화술 공연, 책임은 버스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준비했으니 도서관에서 김제시민은 물론 도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신속대응으로 자살기도자 구해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위기대응반을 통해 24시간 관내 자살시도자 및 정신과적 문제에 대해 신속한 출동과 정확한 판단력으로 보다 효과적인 위기현장출동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21일 밤 11시경 서술시에 거주하던 20대 남녀(각 1명)가 경제적으로 어려움(독촉)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시도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렌트한 차를 타고 경기도 가평에서 반개탄을 구입해 연고가 전혀 없는 김제시 청하면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해 차량에 반개탄을 피워 놓은 상태로 소중한 생명을 끊으려 했으나 그 시각 현장을 지나가던 동네주민의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경찰관들에 의해 만행과출소로 인도됐다.

이후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 2명이 응급현장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른 현재증상 및 문제의 심각도를 평가하는 한편 대상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상담을 실시한 후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극도의 위기상황으로 판단하고 경찰관들에 의한 응급입원처치를 진행했다.

추후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보호자에게 인계를 하는 것과 더불어 관찰지역과 연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 완주군 정보화 농업인 위상 '우뚛'

## 전북 경진대회 상 휩쓸어 4년연속 최우수상 쾌거

완주군이 2018 전라북도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에서 4년 연속 단재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5일 완주군은 지난 4일 '농촌을 선도하는 정보화농업인' 콘셉트로 열린 제8회 전라북도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에서 시군 정보화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라북도정보화농업인연구회가 주최하고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이 주관했으며, 전북 14개 시·군 농업인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대회는 △개인경진 시상 △개회식 △특강 △농산물 상품전시 △시군별 장기차량 △우수사례 발표 △폐회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완주군은 그동안 연구회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정보화교육을 통해 SNS를 활용한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완주군은 개인별 경진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55세 이하 블로그포스팅에서 이현주



완주군은 지난 4일 '농촌을 선도하는 정보화농업인' 콘셉트로 열린 제8회 전라북도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에서 시군 정보화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운주면·44세)씨, 55세 이상에서 박상욱(경천면·71세), 폐북라이브방송 김용운(비봉면·36세)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우수상에는 사업계획서 발표에서 송남희(동상면·48)씨가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특히, 단재전 시군별 경진에서 4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완주군의 정보화 농업인 위상을 드높였다.

김종욱 완주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정보화연구회원들이 완주군의 스마트 농업육

## 명절 전 벌초작업 안전사고 잇따라

### 예초기·말뭍 등 주의 당부

김제소방서(서장 윤병현)는 추석을 앞두고 빈번히 발생하는 예초기에 의한 부상과 말뭍 쏘임 등 생활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전남 여수시 화양면에서 벌초작업을 하던 A(59)씨가 밭에 쓰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4일 나주시 봉황면에서는 벌초작업을 하던 B(56)씨가 예초기 날이 부러져 발목에 박히는 사고를 당했다.

김제소방서는 민족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벌초 작업 중에 예초기 또는 낫의 사용부주의로 인한 외상과 밭에 쓰이거나 벌레에 물리는 경우가

많아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초기 사고예방을 위해 예초기 사용 전 정비점검, 사용 시 보호안경 및 모자, 긴소매 작업복 등 착용, 예초기 사용 중 작업 반경 내 접근금지 등 기본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벌초 시 벌 쏘임 사고도 많은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향이 진한 화장품, 화려한 계통의 옷을 피하고, 벌초 전 모 주변을 자세히 살펴 벌집이 없는지 확인하고 예초작업을 해야 한다.

김제소방서 관계자는 "벌초나 성묘 시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해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전한 추석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시 공무원 규제개혁 역량 강화 교육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5일 시청 지하대강당에서 시 소속 공무원 350여 명을 대상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규제개혁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카툰연구소 최은규 대표를 초청해 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지방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김제시는 규제개혁 교육을 통해 민

선7기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시대를 건설하기 위해 21세기 인공지능과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시대에 공직자의 선제적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전대식 부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중요성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